

ESMOD SEOUL

vol.48

information

ÉCOLE SUPÉRIEURE
DES ARTS ET TECHNIQUES
DE LA MODE
DEPUIS 1841

03 ESMOD SEOUL PROMOTION 2016

12 ESMODIANS

16 ESMOD NEWS



CONTENTS

- 03 > PROMOTION 2016
제26회 졸업작품 발표회
- 04 > PROMOTION 2016
제26회 졸업작품 여성복 컬렉션
- 06 > PROMOTION 2016
제26회 졸업작품 남성복 컬렉션
- 08 > PROMOTION 2016
제26회 졸업작품 아동복 컬렉션
- 09 > PROMOTION 2016
제26회 졸업작품 란제리 컬렉션
- 10 > PROMOTION 2016
제26회 졸업작품 심사위원
- 12 > ESMODIANS
에스모드 동문 소식
- 16 > ESMOD NEWS
에스모드 소식



* 위 표지 사진은 에스모드 서울 26기 박소라 졸업생의 졸업작품 컬렉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06 우) 06028
TEL (02) 511-7471~3
발행 편집인 / 박윤정 인쇄 / 팬다콤
창간 / 1992년 5월 7일 등록번호 / 서울 사-1576
연 2회간 / 비매품 48호 발행 / 2017년 6월 8일

2017 JUNE / VOL. 48

ESMOD SEOUL PROMOTION 2016

에스모드 서울 제26회 졸업작품 발표회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임종현 졸업생의 작품

2017년 SUMMER CLASS 안내

에스모드 서울 SUMMER CLASS는 에스모드 3년 정규 과정 이외에 여름방학에만 진행되는 에스모드의 유일한 단기 과정으로, 프랑스 패션디자인 교육인 에스모드 커리큘럼을 가장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에스모드 교수진의 개별지도로 이루어지는 본 특강은 패션 디자인 분야로의 진로모색, 깊이 있는 심화학습, 실무교육을 통한 직업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에스모드 스틸리즘 A	7/17 ~ 8/4	월 ~ 금 (3주, 52.5시간)	09:00 ~ 12:30
에스모드 모델리즘 A	7/17 ~ 8/4	월 ~ 금 (3주, 52.5시간)	13:30 ~ 17:00
에스모드 스틸리즘 B	7/17 ~ 8/4	월 ~ 금 (3주, 52.5시간)	13:30 ~ 17:00
에스모드 모델리즘 B	7/17 ~ 8/4	월 ~ 금 (3주, 52.5시간)	09:00 ~ 12:30

* 모든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패션 디자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관심 있는 자
특성화고 패션 전공자, 대학 패션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도식화의 기초 실기능력을 보완하고 싶은 자
모델리즘의 기초적인 구성법 습득을 원하는 자
에스모드 패션디자인/패턴디자인 커리큘럼을 경험해보고 싶은 자
에스모드 서울 편입학을 원하는 자

접수 및 등록절차

2017년 6월 1일(목)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www.esmod.co.kr)에서 실시

모집인원

각 과정당 30명 내외
* 등록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특전

SUMMER CLASS 수료증 수여
스틸리즘, 모델리즘 동시수강 시 에스모드 서울
1학년 2학기 편입시험 응시자격 부여

할인혜택

스틸리즘, 모델리즘 동시수강 시 10% 할인

문의

02.511.7471~3 (내선 103번)
admission@esmod.co.kr
www.esmod.co.kr
카카오톡 친구추가: 에스모드서울

입학 안내

에스모드 서울은 패션디자인(스틸리즘)과 패턴디자인(모델리즘)을 병행하여 교육하는 3년제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입니다. 1,2학년 때는 여성복 위주의 패션디자인 기초 과정을, 3학년이 되면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란제리 중에서 전공을 선택하여 교육합니다. 신입생 모집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며 입학원하는 분은 6월부터 2월까지 5차례 진행되는 오픈캠퍼스 중 한 번만 참석하신 후 하반기에 전형 절차에 따라 지원하시면 됩니다. 오픈캠퍼스는 교과 과정 설명 및 학년별 작품집 전시, 재학생과 졸업생의 체험단 발표, 재학생들의 미니 패션쇼, 교실 탐방 및 체험 수업 등으로 구성됩니다. 체험수업은 패션디자인이 꿈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로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오픈캠퍼스 일시

- 1차: 2017년 6월 17일 (토) 오후 3시 (체험수업: 오후 1시 30분)
- 2차: 2017년 11월 7일 (금)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 3차: 2017년 12월 15일 (금)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 4차: 2018년 1월 30일 (화)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 5차: 2018년 2월 13일 (화)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 1, 2, 3, 4, 5차 중 1회만 참석해도 됨

체험수업

패션 디자인 분야로의 적성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간
패션 디자인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 (전공, 연령, 성별 상관없음)
에스모드 서울 현지 교수진이 진행
매 회 선착순 25명 (전화 예약 필수)
신청 : Tel. (02)511-7471 (내선 103)

에스모드 서울 제26회 졸업작품 발표회 CROSS ARTSY

12월 8일, 에스모드 서울에서 열린 <에스모드 서울 제26회 졸업작품발표회>가 국내외 패션계 인사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패션쇼는 'CROSS ARTSY'라는 타이틀로, 3년 동안 스틸리즘과 모델리즘 과정을 익힌 각 전공별 총 74명의 26회 예비 졸업생들이 디자인·제작한 작품 268점이 이날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소개됐다. 여성복, 남성복 전공 학생들은 총 10개 스테이지로 구성된 패션쇼로, 아동복, 란제리 전공 학생들은 전시 형태로 각각 졸업작품 컬렉션을 선보였고, 패션계 VIP 인사들이 참석한 7시 쇼가 끝난 후 수상자가 발표됐다.

이에 앞서 11월 29일과 30일, 패션업계 실무자 및 패션계 대표 인사들로 구성된 61명의 외부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심사위원 대상은 남성복 전공 임종현에게 수여됐다. 'AH! FREECA!'라는 타이틀로 작품을 선보인 임종현은 아프리카 데벨레 부족과 필립스 갈렘보 작품에 있는 전통적인 문양, 그리고 세네갈 거리의 아이들인 '탈리베'에서 영감을 받아 그들의 스포티한 요소와 오버사이즈 실루엣의 작품을 선보였다. 다양한 니트 소재와 나일론 소재를 패치워크하여 그래픽적인 문양을 강조했으며 니트 위에 프린

팅을 하고 니트와 니트를 본딩해 두께감을 살렸다. 또 그 위에 털실로 자수를 넣어 수공예적인 느낌을 살려 트렌디하면서도 에스닉하고 스포티한 느낌의 작품이라는 호평을 얻었다.

매년 졸업작품 발표회에 참석하는 크리스틴 발터 보니니(Christine WALTER-BONINI) 에스모드 파리 교장은 "올해는 현대적인 감각을 훌륭하게 표현해낸 작품들이 많아 어느 해보다 더 감명 깊었다. 에스모드 서울은 전 세계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중 특출난 실력을 자랑하는 데 올해 더욱 빛을 발한 것 같다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도 젊은 감각을 자랑하는 박윤정 이사장을 비롯해 여러 교수진의 노고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에스모드 서울 졸업작품쇼의 헤어와 메이크업은 준오헤어와 준오아카데미에서 협찬했으며 더 올라크 컴퍼니, 동동장학재단, 두산잡지 보그코리아, 벤틱스, 신성통상 지오지아, 서울문화사 아레나웜플러스, YKK한국, 좋은사람들, 주한프랑스대사관, 준지, 패션그룹 형지,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등에서 수상 학생들을 위한 부상을 제공했다.



(왼쪽) 크리스틴 발터보니니 에스모드 파리 교장, (가운데) 박윤정 이사장, (오른쪽) 신정숙 교장



졸업작품 패션쇼 피날레

CROSS ARTSY FEMME

ESMOD SEOUL PROMOTION 2016



한국패션디자이너 연합회장 김우정



금바늘상 이예진



올마크상 박소라



VOGUE KOREA상 조원경



패션그룹형지상 이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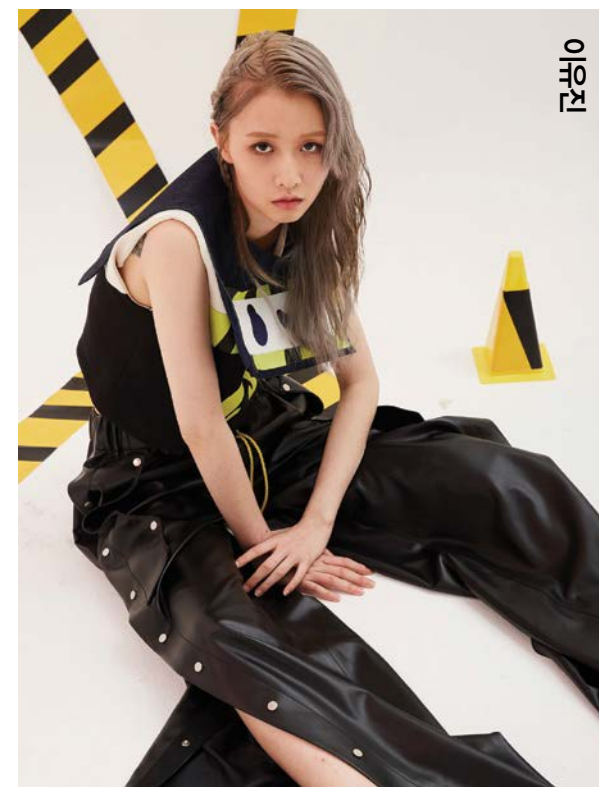
이다혜



서소라



구혜련



김유진



김민



박주연



차유미



주한프랑스대사관상 안진주

CROSS ARTSY HOMME

ESMOD SEOUL PROMOTION 2016



박현



김형기



심서영원 대성 임종현



ZOZIASH 이현나



올마크상 유준영



JUUN.J상 서정현



아레나 음모 플라스상 김홍규



신홍년



YK&H&K상 김연숙



김서수



최지원



조원택



이길근

CROSS ARTSY ENFANT

ESMOD SEOUL PROMOTION 2016



동동최우수상 김수현



임정희



동동최우수상 이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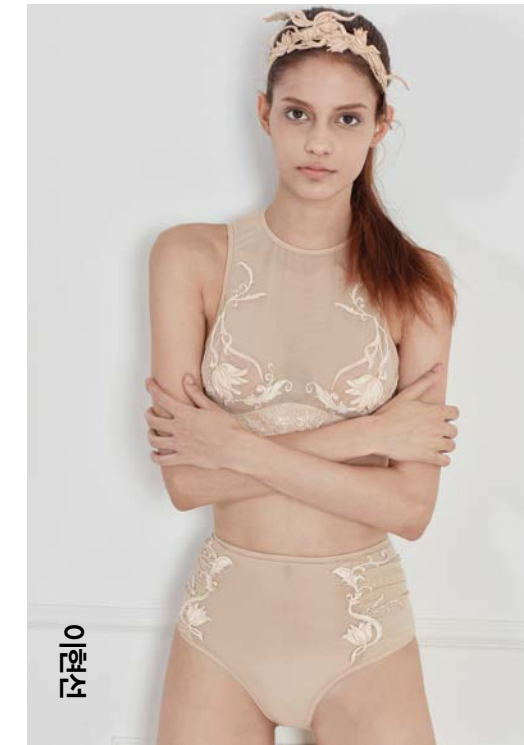
홍유진



서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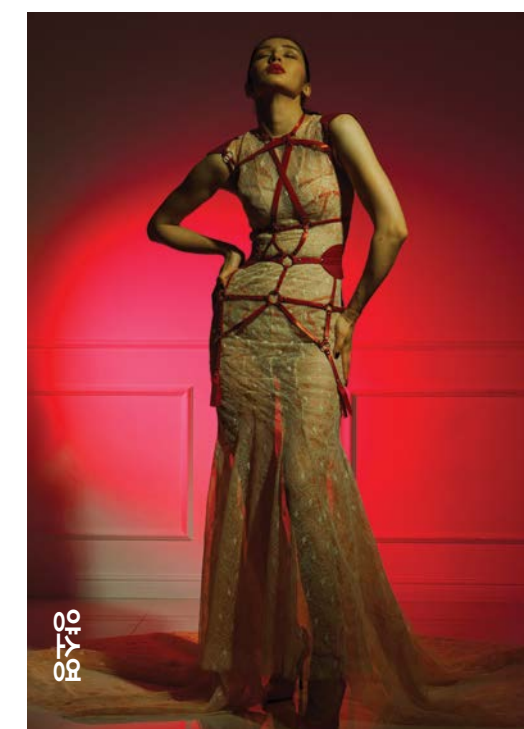
강소현



이원선



김수미



양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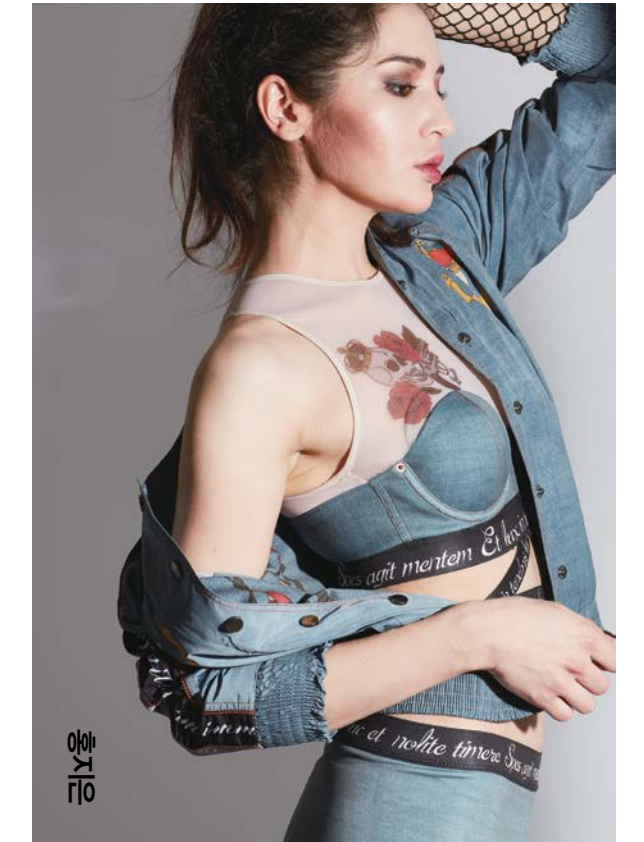
김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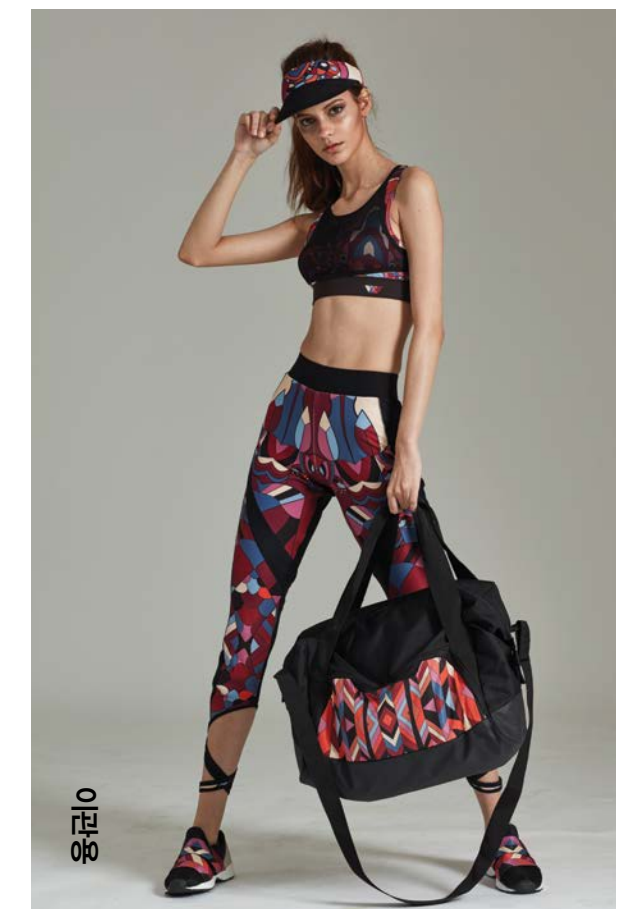
홍은사람들상 황하나



이선주



황지민



이관용

CROSS ARTSY LINGERIE

ESMOD SEOUL PROMOTION 2016

SPONSORSHIP

중은사람들



hyungji 패션그룹형지

YKK®

Juun.J

JUNO HAIR JUNO ACADEMY

ESMOD INTERNATIONAL Fashion Institutes & Universities Group



VOGUE

ZIOZIA



THE WOOLMARK COMPANY

ventex

dong do ng

ARENAHOMME+

ESMODSEOUL 장학 재단



제26회 졸업작품 심/사/위/원/

김덕규	LF ALLEGRI BPU장	박지윤	코웰패션 ADIDAS innerwear 부장
강종화	코튼클럽 상무	박지호	서울문화사 ARENA HOMME+ 편집장
권문수	MUNSOO KWON CD	방진연	대현 DEWL 부장
권재현	신성통상 ZIOZIA 상무	배명철	F&F Discovery EXPEDITION 부장
김계숙	좋은 사람들 리바이스 사업부 디자인팀 부장	배은영	SK네트웍스 2nd floor 실장
김남희	베네통코리아 BENETTON 실장	서미정	ISH 디자인 이사
김선미	인티지아 대표	서종환	엑스엑스엘 BARREL 대표
김수련	퍼스트어패럴 GUESS kids 실장	손형오	코오롱 인더스트리 customellow CD
김수현	MU S&C LEVI'S KIDS 실장	신선주	좋은사람들 R&D센터 센터장
김은정	보그레머천다이징 OLIVE DES OLIVE 실장	신재은	제이스타일코리아 I LOVE J 이사
김은정	퍼스트어패럴 이사	안경화	제로투세븐 의류사업부 상무
김은정	제이콘텐츠리 엠엔비 C&C 편집장	안진옥	서양 네트웍스 팀장
김종윤	게스 홀딩스 코리아 GUESS underwear 실장	유덕형	TBH 글로벌 MARCBRICK 실장
김현정	삼성물산 패션부문 KUHO 실장	윤영주	I.D.LOOK 상무
김흥기	FASHION CURATOR	이수진	LF 리테일브랜드 사업부 실장
김효빈	패션그룹 형지 상무	이주영	RESURRECTION 대표
루비나	RUBINA 대표	이준구	신성통상 OLZEN 실장
류제혁	LF JILLSTUART NEW YORK 실장	이진화	코웰패션 PUMA innerwear 부장
민은선	FASHIONBIZ 편집장 사장	장수진	지엔코 Thursday Island 실장
민정호	신세계로보이 COMODO 실장	장시혁	삼성물산 패션부문 GALAXY 수석
박종윤	아스트라페 comeonvincent 대표	장지혜	퍼스트어패럴 TIFFANY 실장

전은정	진서 BOTTICELLI 실장
전지연	GIANNA 대표
정미선	NOHKE 대표
정석명	동동창학재단 이사장
정유경	솔리드 wooyoungmi collection 실장
정은임	랩코리아 LAP 이사
정혜빈	시선인터내셔널 COMING STEP 부장
조 민	좋은 사람들 CFO
조혜선	엠코르셋 상무
차명숙	이현어패럴 상무
최용준	DCTY 본부장
최판길	크레송 L'UOMO 실장
한경애	코오롱 인더스트리 상무
허미정	서양 네트웍스 팀장
홍승완	이안유나이티드 ROLIAT 대표
홍정아	휠라코리아 FILA 실장
황혜연	남영 비비안 부장
Nino Satoru	ESMOD international 회장
Okuma Kenji	YKK한국 general manager

* 가나다순 / 소속 회사명과 직책은 2016년 11월말 기준

제26회 졸업작품 심/사/평/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좋고 소재 개발이 매우 우수합니다. 아티스틱한 소재에 우수한 테크닉이 결합된 작품들이 훌륭합니다.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Nino Satoru 회장

컨셉을 풀어가는 작업의 해석인 창의성과 실용성 부분이 특히 적절했으며 컬러 조합의 변화가 신선했다. 디자인 설명 시, 연기 능력도 필요할 듯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경애 상무

해가 갈수록 발전하는 학생들 실력에 선배로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각 아이템에 너무 많은 유틸리티적 요소와 강약 조절만 된다면 더 좋을 듯

신성통상 ZIOZIA 권재현 상무

브랜드로 당장 론칭해도 좋을듯한 컨셉, 디테일, 컬러 등등 하나하나 세심한 처리에 놀랐다. 지금 이렇게 옷을 좋아하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제로투세븐 안경화 상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해 아이디어를 넣어 기능성까지 첨가시킨 아동복 컬렉션!

이현어패럴 차명숙 상무

어려운 소재를 속옷으로 표현하면서도 예술성을 극대화한 작품들이 돋보였다.

좋은사람들 조민 CFO

란제리 트렌드와 유통의 변화로 아우터와 란제리의 매칭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 흐름을 잘 잡고 있다고 느꼈다.

GUESS underwear 김종윤 실장

전체적으로 각자의 컨셉과 주제에 맞춰 치밀하면서도 심오한 태도로 완성도 있게 작품을 제작한 것이 감동스럽다. 아마추어의 자세를 잃지 않고 각자의 작품에 최선을 다한 작품 원작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SK네트웍스 2nd Floor 배은영 실장

코스모폴리탄으로서 살아나가야 할 우리들에게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미학과 그 소통'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이 에스모드에 서 찾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즐겁게 예상해 본다.

패션그룹 형지 김효빈 상무

여성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는 기본에 충실함과 동시에 독창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컬렉션!

진서 보타첼리 전은정 실장

매우 다양한 테마와 컨셉으로 구성된 졸업작품컬렉션을 보는 심사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작품은 바로 판매되어도 될 만큼 상업적인 면이 보여졌습니다.

LAP 정은임 이사

전체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어 인상 깊었다. 소재개발, 디자인, 스타일링에 이르기까지 모두 직접 해낸 모습이 보기 좋다.

Céci 김은정 편집장

학생들이 YKK 특수지퍼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용해 공부가가 되었다. 상상력이 넘치는 컬렉션!

YKK 한국 KENJI OKUMA general manager

아트피스 성격의 옷들,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옷들, 각각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완성도가 높아 매우 인상적이었다.

커스텀멜로우 손형오 CD



Bonjour Esmodians!



"패션을 하는 지금이 가장 뜨거워요"

2학년_장민호

국민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패션회사 F&F MLB 영업부에 입사했다.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퇴사 후 회계사 공부를 3년하고 그만둘 때쯤, 인생에서 정말 하고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죽으면 너무나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제서야 비로소 용기를 냈다.

어릴 때 부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간직했던 패션 디자인을 더 늦기 전에 해보리라 결심했다. 알아보면 중 에스모드 서울 Summer Class를 들으면 1학년 2학기로 편입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기에 바로 지원했다. 3주간의 수업을 열심히 듣고 방생 과제에 편입시험 과제까지 모두 제출해 합격의 결과를 얻어 내 나이 서른 넷, 에스모드 서울 1학년 2학기로 입학하게 됐다. 입학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집중하는 때라고, 행복하다는 것, 에스모드에 와서 그게 원치 않게 됐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별된 삶 위해 에스모드 서울에 왔어요"

네덜란드에서 온 신입생_로라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스코틀랜드와 프랑스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네덜란드에 정착했던 고등학교 시절, 한국의 서울사대부고로 교환학생을 왔다. 그 시절 한국의 교복이 너무 심심해서 여러 종류의 양말과 신발, 장신구로 차장을 하면서 패션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매력을 느꼈고 패션 디자이너로 장래희망을 정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패션스쿨을 놓고 고민했을 때, 독일 아티스트 볼프강 틸만(Wolfgang Tillmans)의 한 마디가 나를 움직였다. "만약 당신이 유니크하고 싶다면 또는 그렇게 보이고 싶다면 노력해라. 어디든지 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한국이라면 웬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에스모드를 택한 이유는 온전히 패션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커리큘럼과 수업분위가 좋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하는 교수님이 계셔서 쉽게 소통할 수 있다. 에스모드 서울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다. 졸업까지 쭉.



"공기업 대신 패션을 택했어요"

인턴시브 과정_이만섭

타인이 보기에 꽤나 괜찮은 인생이었다. 국립대 경영대에선 시험만 보면 A+, 높은 어학점수, 각종 자격증, 인턴에 교환학생까지 소위 말하는 스펙 좋은 학생이었다. 스물다섯이라는 나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했고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고민했을 때 답이 쉽게 나왔다. 두 말 할 것 없이 바로 패션이었다. 패션교육기관을 알아볼 때 에스모드의 교수진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 또 단기간에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나와 같은 학생에게 딱 맞는 인턴시브 과정이 개설된다는 것을 알았다. 서른살에 시작하는 공부이기에 단기간에 초 집중할 수 있는 '인턴시브 과정'을 택했다. 입학하고 보니 하루 평균 3~4시간 자고 주말에도 계속 과제를 하지만, 모든 과정이 재미있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이제야 내 옷을 입은 것 같다.



"에스모드 도쿄에서 서울로 편입했어요"

2학년_상다니

중국, 일본, 미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에스모드 도쿄에 진학했다. 어린 시절 오랫동안 미술을 했고 쇼핑을 좋아하는 엄마 덕에 5살 때부터 패션 브랜드를 알았다. 13살때는 모델로 도쿄패션위크의 런웨이에 오르기도 했다. 모든 경험의 영향으로 패션 디자이너를 꿈꿨을 때 즈음, 에스모드에 대해 알게 됐다.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에스모드의 국제 캠퍼스, 편입과 교환학생 제도, 그리고 에스모드 파리의 오토쿠튀르 전공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최종적으로 오토쿠튀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1단계로 에스모드 도쿄에 지원했고, 예전부터 한국에서도 공부하고 싶었던 차에 분교간 편입 시스템을 통해 에스모드 서울 2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 오토쿠튀르 전공은 에스모드 파리에만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때 에스모드 파리로 편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실력 있는 오토쿠튀르 디자이너이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이름을 알리고 싶다.



RALMODE 랄모드

25기 권윤성 동문(여성복 전공)이 17 SS 컬렉션을 시작으로 RALMODE(랄모드)를 론칭했다. 랄모드는 세상을 향해 뿜어내는 자신만의 고유한 에너지를 '랄(RAL, 刺)'이라는 단어로 정의,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색과 나만의 '랄'의 상태(RAL-MODE)로 속박된 일상을 벗어나 자유로운 해방의 정신을 담았다. 옛지 있는 컬러 컨트라스트와 생동감 있는 프린트, 편안한 실루엣이 가장 큰 강점이며,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를 추구한다. 'RM06522: MY lonely planet'이라는 타이틀의 이번 컬렉션은 미래의 어느 행성인 'RM06522'에 홀로 살고 있는 상상 속의 소녀를 뮤즈로 전개했다. 우주에서 영감을 받은 프린트, 스포티한 소재와 실루엣을 사용해 티셔츠, 베스트, 원피스, 후드집업, 팬츠 및 점퍼, 스커트 등 총 10개 품목을 선보였다. 제품은 온라인 스토어인 랄모드 공식 홈페이지(www.ralmode.com)와 오프라인 매장 'Need21갤러리(종로구 혜화동)'에서 만나볼 수 있다.

@ ral.mode_official



GATELESS 게이트리스

25기 조윤여 동문(여성복 전공)이 론칭한 GATELESS(게이트리스)는 옷과 핸드메이드 액세서리가 중심이다. 브랜드명 그대로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출구 없는' 매력적인 감성을 지향한다. 특히, 액세서리는 화려한 디테일과 희소성 있는 디자인으로 주목도가 높는데, 인기 랩퍼 지코가 게이트리스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이 SNS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한 문의가 점점 늘고 있다. 조윤여 동문은 졸업 후 서대문구청의 신진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에서 1등으로 선정돼 이대 거리에 단독매장을 제공받아 그곳에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매장: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5길 36

@ gateless_official



tioom et mère 티움에메르

한국어로 '씩을 띄우다'라는 뜻의 명사형 '티움'과 프랑스어로 엄마인 'mère'가 만나 탄생한 tioom et mère (티움에메르)는 10기 황유진 동문(아동복 전공)이 지난해 6월 론칭했다. 아이들의 편안한 활동을 고려한 디자인, 프랑스 전통 방식의 정확한 패턴, 미국 유럽 및 국내 다양한 업체에서 엄선된 소재를 사용해 튼튼하고 섬세한 봉제로 완성한 티움에메르의 옷은 이미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거주하는 엄마들에게도 반응이 뜨겁다. 예쁘면서도 실용적인 옷, 무엇보다 아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는 티움에메르. 전 제품은 온라인숍 www.tioometmere.com 에서 확인 가능하다.

@ tioometmere



STAFF ONLY 스태프온리

24기 이진현 동문(남성복 전공)이 지난 해 론칭한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뜻의 STAFF ONLY(스텝온리)는 매 시즌, 새로운 작업을 소재로 관계자(STAFF)만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프리패스'의 무드를 옷에 담아냈다. 특정 직업에서 보여주는 색깔,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디자인 요소로 반영해 특별하면서도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대중성에 초점을 뒀다. 16 SS의 청소부(CLEANER), 16 FW의 주유원(GAS SNIPER)에 이어 17 SS컬렉션에서는 페인터(PAINTER)의 삶을 담아 데님재킷, 커버벌 재킷, 스웨터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제품은 홈페이지 www.staffonly.kr을 비롯해 온라인숍 MUSINSA와 온·오프라인 숍 TAKE A STREET, ODD GALLERY에서 만나볼 수 있다.

@ staffonly_official

2017 F/W 헤라 서울패션위크에 참가한 에스모드 서울 동문

에스모드 서울 동문 4인이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2017 F/W 헤라서울패션위크에 참여했다.
이번 시즌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린 온쇼(On-Show) 및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오프쇼(Off-Show) 등
각 컬렉션이 보다 돋보이는 형식으로 발표돼 더욱 이목을 끌었다.



커스텀멜로우 Customellow

손형오 동문(8기)
www.customellow.com

손형오 동문(8기)이 CD로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 FnC의 커스텀멜로우(Customellow)는 지난 시즌에 이은 두 번째 컬렉션 '음음...(Mmm...)'을 선보였다. 이번 시즌은 클래식 발레 유망주에서 안티 발레의 대명사가 된 영국 안무가 마이클 클락(Michael Clark)에게 영감을 받아, 발레와 펑크의 조화를 자유분방하게 표현해냈다. 발레 하면 떠오르는 새하얀 컬러 대신 강렬한 레드와 오렌지, 블루 컬러와 무대 위 강렬한 안무는 이번 컬렉션의 모티브가 된 마이클 클락의 상징적인 이미지다. 기존 발레의 통속적인 방식을 탈피한 표현법은 옷 위에서 더욱 강렬하게 나타났는데, 모던한 발레의 상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짧은 길이의 탑과 레이어드한 롱 셔츠는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실루엣으로 손꼽혔다. '테디보이' 스타일의 스모킹 코트와 체스터필드 코트는 부드러운 컬러와 소재로 특유의 반항심을 좀 더 잔뜩하게 가다듬었고, 반항아들의 유니폼과도 같았던 라이더스 재킷도 벨벳 소재와 만나 우아함을 갖췄다. 클래식한 실루엣의 슬랙스에도 벨트와 지퍼, 펀칭 디테일들이 더해져 반전의 매력을 더했다.



리릭 lirik

이정필 동문(21기) www.lirik.kr

지난 시즌에 이어 서울패션위크의 트레이드 쇼 '제네레이션 넥스트 서울'로 다시 무대에 선 이정필 동문(21기)의 리릭(lirik)은 '속박' 혹은 '굴레'를 의미하는 요크(Yoke)가 콘셉.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민과,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청년의 눈으로 표현했다. 묶여 있지만 풀고자 하면 바로 풀어버릴 수 있는 '끈 디테일'을 상징적인 포인트로 활용해 블랙, 화이트, 그레이 컬러와 매치, 소재 끝 단에서 표현했다. 테일러드 슈트와 같은 박시하면서도 루스한 실루엣으로 클래식한 아방가르드 느낌을 주는 한편, 후드 티나 배기 팬츠, 요가 팬츠 등의 컨템퍼러리 아이템으로 커머셜 느낌도 보강했다. 이번 리릭 컬렉션은 끈을 통한 직선과 곡선의 만남, 레이어드와 빈티지의 조화를 통해 엮어 있는 모노그램 룩을 완성했다는 평을 얻었다.

서리얼 뱀 나이스 Surreal But Nice

이수형 동문 www.surrealbutnic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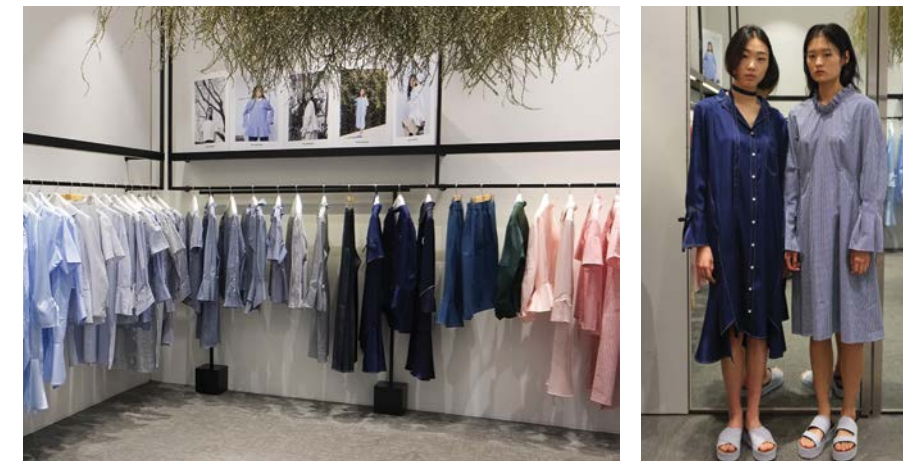
이수형 동문(2001년 에스모드 서울 입학, 2004년 에스모드 파리 졸업)이 아내 이은경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서리얼 뱀 나이스(Surreal But Nice)는 이번 시즌 성수동 쇼룸에서 100여 작품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선보였다. 겨울 레포츠에서 영감을 받아 데이웨어와 아웃도어의 믹스 매치를 선보였으며, 빈티지 스키와 마운틴 이어링에 포커스를 두어 각 나라별 스키장의 이름을 딴 로고플레이로 캐주얼 웨어에 포인트를 더했다. 또한 기능적인 솜을 사용한 패딩류를 보다 더 아웃도어 웨어에 가깝게 접근해 스포티함을 극대화시켰다. 기존 서리얼 뱀 나이스의 밀리터리 베이스의 클래식함에 이번 시즌 블랙, 베이지, 네이비 색상들을 활용해 고급스러우면서도 강렬한 디테일로 접근했다. 새틴소재의 이브닝 웨어와 데이웨어는 컬러풀한 색감으로 플리츠 디테일을 활용해 발랄함을 더했다.



그라운드웨이브 GROUNDWAVE

김선호 동문(16기) www.groundwave.kr

김선호(16기) 동문의 그라운드웨이브(GROUNDWAVE) 컬렉션 역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동대문 두타몰 1층 g.wave 매장에서 공개됐다. 모던하고 직선적인 남성 셔츠의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 부드러운 코튼 소재와 흐르는 듯한 폴리 소재 그리고 매니시한 느낌의 시어셔커 소재를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 셔츠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라인에 과감한 디테일을 더해 여성 컬렉션을 완성했다.



준지 정욱준 동문, 파리 컬렉션 진출 10주년! 2017 F/W 아카이브(Archive) 컬렉션

준지(Juun.J) 정욱준 동문(27기)이 1월 20일 프랑스 파리의 르네 데카르트 대학에서 2017 FW 파리컬렉션을 개최했다. 파리 진출 10주년이자 준지의 스무 번째 무대였다.

컬렉션 주제는 아카이브(Archive). 지금까지의 브랜드 발자취를 회고하고 다시 한번 변화를 꾀한다는 의미를 담아 트렌치코트, 오버사이즈, 스트리트 테일러링, MA-1 보머(항공점퍼), 가죽 소재, 카키색 등 준지 브랜드를 대표하는 스타일을 2017년의 관점으로 재해석 했다. 시즌 트렌드인 오버사이즈와 긴 소매가 준지의 방식으로 표현됐고, 낙하산 원단을 사용한 아우터와 배낭의 스트랩 등이 주요 디테일로 활용됐다.

특히, 준지는 26명의 모델 중 11명을 여성 모델로 런웨이에 올려 남성복과 여성복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작년 FW 시즌 콘셉 이었던 '레스(less)'에서 밝힌 '젠더리스(genderless: 성별의 경계를 파괴하는 패션)'라는 준지의 스타일을 최대한 강조한 것이다.

한편, 준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욱준 상무는 2007년 파리 컬렉션에 데뷔한 이래 그 동안 클래식한 디자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한 옷들을 선보여, 전 세계 언론과 소비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다.



졸업생 선배들의 동문 특강

4월 15일 토요일, 에스모드 서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업에서 활동하는 졸업생 선배들의 '동문특강'이 열렸다. 이 날의 초청동문은 인동에프엔 장정애(7기) 기획본부장, 한섬 시스템웜 디자인실 송기호(17기) 선임 & 서기원(20기) 디자이너, 여성복 브랜드 해프닝(HAPPENING)을 운영하고 있는 차진주(13기) 실장. 네 명의 동문들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주요 메시지를 만나본다.



인동에프엔 기획본부장 장정애(7기) _ 빠른 시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소양을 키워라

패션 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버버리, 구찌 등의 해외컬렉션을 이제는 모바일로 손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빠른 흐름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려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하는데 이는 학창시절에 대부분 다져진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숙지하자. 반복해서 하다보면 익숙해질 것을 믿고, 안되더라도 계속 훈련해 볼 것을 제안한다. 빠른 시대에 대응하는 또 다른 자세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라이프스타일은 어떤지 등의 이슈를 알고 사회 전반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패션을 대하는 기본 자세다. 이 밖에, 사람을 이해하는 힘, 마케팅 및 유통 전략 등 미래지표를 읽는 능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겁먹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 처음엔 뉴스 하나, 책 한 권으로 시작해보자.

한섬 시스템웜 선임 디자이너 송기호(16기) _ 에스모드에서 배우는 모든 과정을 기억하라

돌아보니, 에스모드에서 배운 것들이 남달랐던 것 같다. 3년간 길러진 '깡'으로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잘 해냈고, 경쟁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았다. 에스모드 서울 출신으로 업계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배우는 모든 과정을 반드시 기억하라. 나중에 브랜드에 취업하면 그대로 하게 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돈을 벌면서 그 일을 할거라는 것이다. 학창시절, 컨셉을 고민하고 소재개발과 디테일을 고민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몇 년 전에 코트를 디자인해서 가봉을 보다가 길이를 과감히 잘라서 점퍼로 만들어 좋은 결과를 냈던 적이 있었다. 못 만드는 과정을 잘 알고 있으니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학교에서 배워라. 그리고 알려면 확실히 알아라. 그것이 반드시 강점이 될 것이다.

한섬 시스템웜 디자이너 서기원(20기) _ 입사 시 중요한 점은 경험이다

한섬의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이 무려 100대 1이라고 하더라. 그 높은 경쟁률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우선, 이력서를 잘 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트폴리오가 우수해야 할 것이다. 콘테스트 등의 대외활동 경험도 있으면 플러스. 외국어도 중요해졌다.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하자면,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경력 디자이너로 입사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 어떤 회사든 경력을 잘 쌓고,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인맥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가 된다면 작은 브랜드이건 큰 브랜드이건 먼저 경험해봐라. 느끼는 바가 많다.

해프닝(HAPPENING) 실장 차진주(13기) _ 많이 보고, 많이 입고, 많이 만져보고 느껴봐라

"감각은 노력해서 느는 것이다." 2학년 때 담당교수이셨던 신정숙 교수님(현 에스모드 서울 교장)께서 하신 말씀이다. 학생 때는 내가 재능이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많이 해봐야 한다. 절대적인 경험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도 많이 가고 공연이나 전시도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만져보고 입어봐야 한다. 회사에 다니던 시절, 시장 조사를 한 후에 1~2회씩 하고 레포트를 썼다. 횡수가 쌓일수록 내 스스로 감각이 늘었는지 분간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나 스스로 많이 해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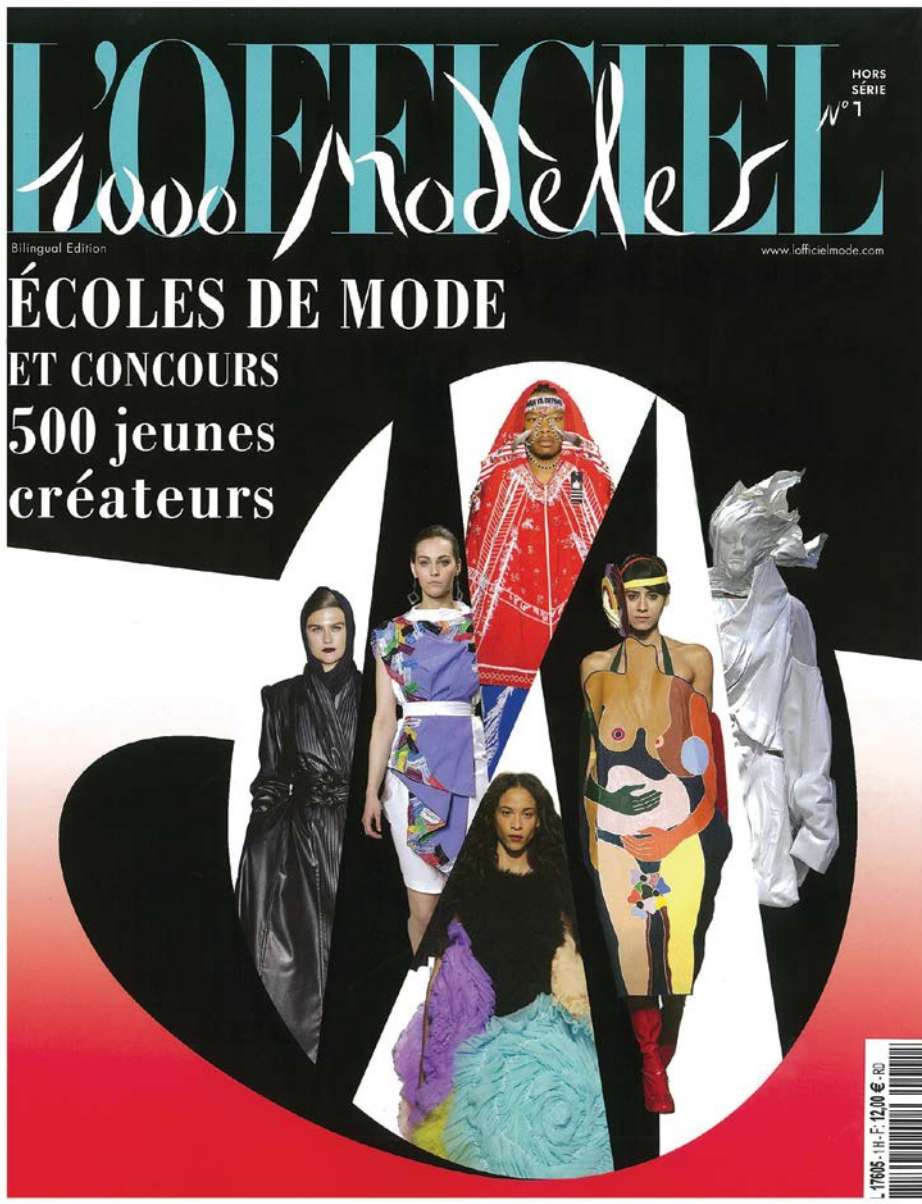
- 1 인동에프엔 장정애(7기) 기획본부장
- 2 한섬 시스템웜 디자인실 (오른쪽)송기호(17기) 선임 & (왼쪽)서기원(20기) 디자이너
- 3 여성복 브랜드 해프닝(HAPPENING) 차진주(13기) 실장

[프랑스 패션매거진 L'OFFICIEL 2017년 2월호]

ECOLES DE MODE ET CONCOURS 500 JEUNES CREATEURS

전 세계 유명 패션스쿨 작품 소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에스모드 서울 선정

프랑스의 역사 깊은 패션 매거진 로피시엘(L'OFFICIEL)에 전 세계 30여 개 유명 패션스쿨의 작품이 소개됐다. ECOLES DE MODE ET CONCOURS 500 JEUNES CREATEURS라는 타이틀로 등장한 작품은 총 1,000여 점. 프랑스의 에스모드 파리(ESMOD PARIS), 영국의 센트럴세인트마틴스(CENTRAL SAINT MARTINS), 미국의 파슨스(PARSONS) 및 FIT 등과 함께 한국에서는 단연 에스모드 서울(ESMOD SEOUL)만이 이름을 올렸으며, 2015학년도 3학년 졸업작품 9점이 지면을 장식했다. 해당 작품은 여성복 전공 권윤성, 김세연, 김아람, 김지윤, 조윤여, 주유미 및 남성복 전공 윤재용, 이소연, 이학중 졸업생 (가나다 순)의 작품이다.



제34회 대한민국 패션대전 금상(국무총리상), 장려상 수상



지난해 11월 16일, 제34회 대한민국패션대전에서 에스모드 서울 26기 졸업생 김재학(당시 3학년, 여성복 전공)이 국무총리상인 금상을, 26기 임창일(당시 3학년, 남성복 전공)이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패션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패션대전은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경력, 소속에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어 경쟁률이 매우 높다.

총 529명이 지원했고 디자인맨, 스타일화, 패턴메이킹,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한 PT심사, 실물의상 및 면접심사 등의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의상제작능력, 코디네이션능력, 소재개발 및 응용능력, 디자이너로서의 자질 등을 심사 받아 16명이 최종 무대에 올랐다.

콘테스트의 테마는 '나로부터'였으며, 서양복식으로 제작하되 한국적인 모티브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것이 미션이었다.

국무총리상인 금상을 수상한 김재학의 작품은 '나의 어머니의 힘으로 부테(From my mother's strength)'라는 제목으

로 순백의 화이트 컬러로 구성됐다. 언더우드 여사의 1900년도 아르누보 스타일의 곡선적인 룩과 독립군의 군복에서 보여지는 거친 퍼(fur)의 믹싱 커팅(mixing cutting)기법을 이용해 한국적인 문양을 표현했다.

김재학은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들께 늘 감사하고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큰 힘이 되었다"라며, "관심 분야였던 쿠티르 요소로 작업한 작품으로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쿠티르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재학에게는 상금 1천 3백만원의 패션 스타트업 지원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한편, 장려상을 수상한 임창일은 '여명 속의 남자(Man in shadow)'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몸을 은은하게 드러내주는 빛과 그림자 속의 남자를 테마로 새로운 남성성의 미학을 표현했다. 임창일에게는 장려상 수상금 1백만원이 수여됐다.

에스모드 서울은 대한민국패션대전에서 지난 12회, 13회, 21회, 23회, 33회 대상을 포함해 올해까지 총 35명의 수상자를 배출해냈다.



금상(국무총리상) 26기 김재학



장려상 26기 임창일



에스모드 서울, 학점은행제 도입으로 학위취득 길 열어

에스모드 서울이 2017년 3월부터 학점은행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27년간 교육해온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이 가능한 학습과정만을 선별하여 평가인정 받음으로써, 패션디자인(스틸리즘)과 패턴디자인(모델리즘)을 동시에 교육하는 실무형 커리큘럼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

에스모드 서울 신정숙 교장은 "패션업계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에스모드의 힘은 '차별화된 실무형 커리큘럼'에 있다."며, "이번 학점은행제 도입으로 에스모드만의 강점

은 살리면서도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학생들의 진로 모색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라고 말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사 및 승인을 통해 실시되는 학점은행제는 소속 기관 내 외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2년제 또는 4년제 학사의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로써, 에스모드 서울의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올해부터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29회 입학식 및 2017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2017학년도 에스모드 서울 제29회 입학식이 3월 3일 오후 2시, 본교 아르누보홀에서 개최됐다. 입학식을 마친 후 학사 일정과 교칙,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다. 신입생들은 4개 정규반과 1개 인턴십반으로 배정되어 각 반 교실에서 스타일리즘, 모델리즘 담당 교수와 인사를 나누

고 에스모드 파리 본교에서 제작된 교재와 교구를 배부 받았다. 한편, 이날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1학기 에스모드 서울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되어 총 23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2017학년도 1학기 에스모드 서울 장학생〉

에스모드 서울 이사장 장학생 3학년 안혜은, 2학년 최다빈
에스모드 서울 장학재단 장학생 3학년 하태윤, 3학년 이승윤,
2학년 김미희
일정 장학생 3학년 김선국
유순덕 장학생 3학년 남길환
인터맥스 장학생 3학년 권민수
정헌재단 장학생 3학년 장시범
동동재단 장학생 3학년 공인정, 3학년 이아영
박윤정 장학생 3학년 이민선

울산 장학생 3학년 이수연
재정 장학생 3학년 김광욱
한영 장학생 3학년 서동권
록원 장학생 2학년 김영진
루비나 장학생 3학년 안다영
해선 장학생 2학년 김태선
지인 장학생 2학년 장수경
보라 장학생 2학년 김정호
자영 장학생 2학년 장민호
에스모드 서울 교직원 장학생 2학년 박세현, 2학년 이보은

제26회 졸업식

2월 24일 본교 아르누보홀에서 제26회 졸업식이 열렸다. 올해는 69명의 졸업생과 5명의 수료생, 총 74명이 에스모드 서울의 3년 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중 여성복 전공은 32명, 남성복 전공은 28명, 아동복 전공은 6명, 랜제리 전공은 8명 이다. 본교 교수진과 에스모드 서울 장학재단 이사진, 학부모들이 자리한 졸업식에서 3학년 졸업생, 수료생 전원은 단상에서 차례로 졸업장과 수료증을 수여 받았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졸업작품 패션쇼에서 심사위원상과 금바늘상 등 총 14개 부분 상이 수여된데 이어, 졸업식에서는 각 전공별 최우수상과 대상, 공로상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3년간의 학업성적, 졸업작품, 교내 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는 대상은 여성복 전공 박소라에게 수여됐다. 각 전공별 최우수상은 김우정(여성복), 김한나(남성복), 이혜원(아동복), 황미나(랜제리)에게 돌아갔다. 또한, 학업성적 및 교내 활동이 우수하고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생 14명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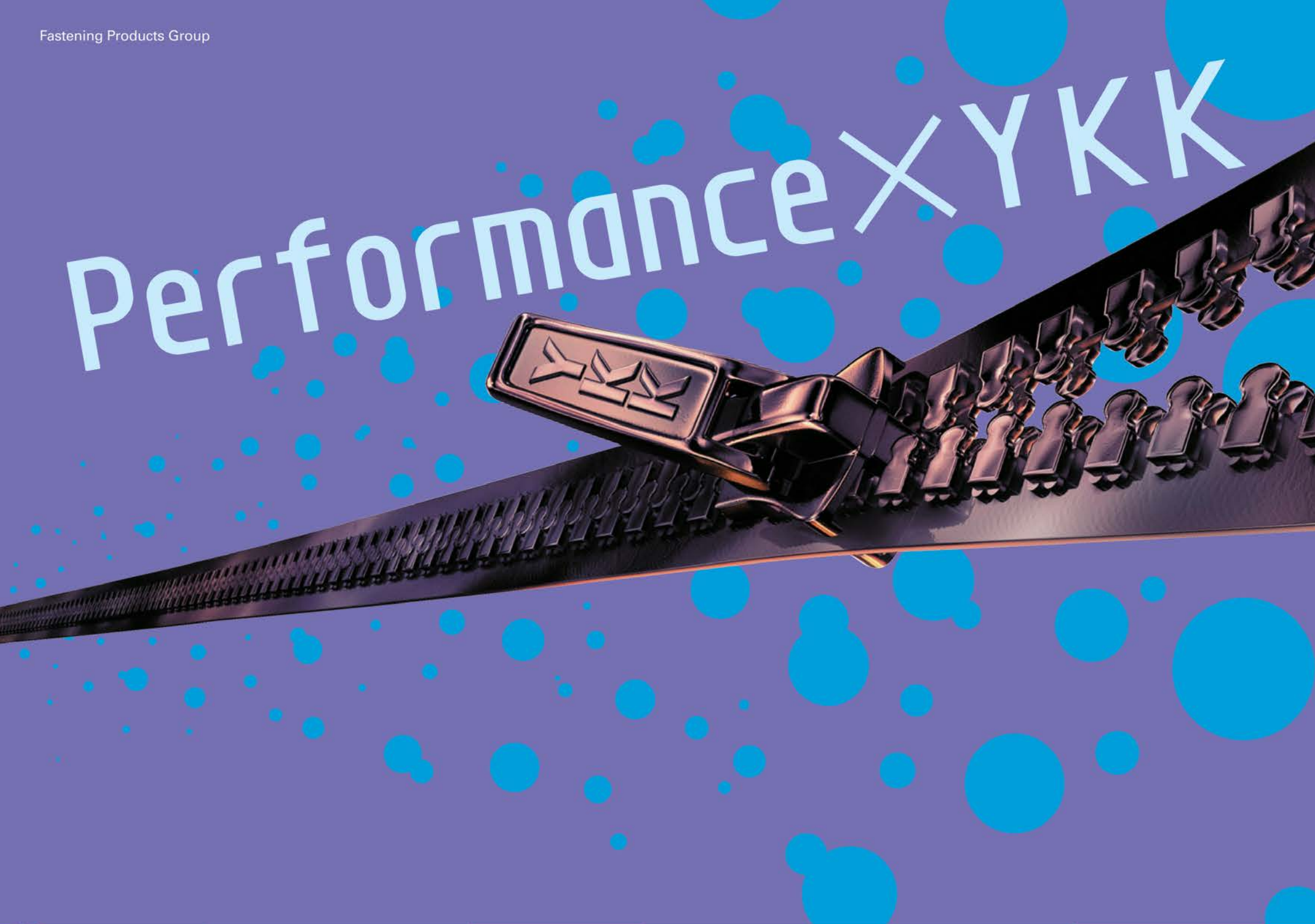
졸업생 대표인사를 담당한 이예진 학생은 "자신의 재능과 관심의 영역을 발견한 우리는 행운아다. 3년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때로는 두렵고 지칠 수도 있지만, 우리의 3년을 기억하며 버텨내자. 우리가 보낸 최선과 최고의 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용기 어린 인사로 졸업식의 감동을 더했다.

74명의 졸업/수료생들은 2014년 입학식, 1학년 미니데필레, 2학년 워크숍, 3학년 졸업작품발표회에 이르기까지 지난 3년간 동기들과 함께했던 사진을 영상으로 관람하고 전 교수진과 감사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26회 졸업식 부문별 수상자〉

▶ 대상: 박소라
▶ 여성복 최우수상: 김우정
▶ 남성복 최우수상: 김한나
▶ 아동복 최우수상: 이혜원
▶ 랜제리 최우수상: 황미나
▶ 공로상: 김영주, 김재학, 박제선, 신홍섭, 오승민, 오연주, 이예진, 이정우, 임정희, 임창일, 조현택, 최지완, 한휘중, 황미나





Performance X YKK



Mode X YKK

YKK

Little Parts. Big Difference.®

 YKK KOREA CO., LTD.

·Head Office: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20층
·Tel. 02-3705-7900 ·Fax. 02-3789-7990~1
·E-mail. ykkkorea@ykk.co.kr
·Homepage. www.ykkkorea.com